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89호
12월 13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한국기독교한림원·서울신대, ‘한국교회와 이단’ 주제 공동 학술대회 열려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정통 복음신앙 위협...경계해야



조용목 목사
한국기독교한림원 이사장



정상운 목사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한국기독교한림원(이사장 조용목 목사·원장 정상운 성결대 명예총장)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가 11월 28일(금) 부천 서울신대 존토마스홀에서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드린 1부 개회예배에서는 총무 박응규 박사(아신대 명예교수) 사화로 이용호 부총장(서울신대)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후 황덕형 총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서울신대를 위해’, 이억주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도균 신학대학원장(서울신대)의 기도와 황덕형 총장의 환영사,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해 총장(대신대)의 축사, 정상

운 한국기독교한림원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개회사를 전한 회장 정상운 명예총장은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단 종파들의 침범을 받고 성도들이 무방비로 넘어지고 있지만,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을 파괴하고, 성추행과 금품 갈취 등 반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기독교를 사칭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급증은 교회를 백안시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해주고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정상운 총장은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구원파, 2018년 은혜로교회와 만민중앙교회, 코로나19 창궐과 신천지와 배워야, 얼마 전 ‘나는 신이다’로 다시 드러난 JMS 정명석 등, 단기간 급성장한 한국교회에 못지 않게 이단과 신흥 사이비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적 지형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며 “그들은 지금도 사회적 물의에 따른 비판이나 냉소적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고고한 선민의식에 사로 잡혀 은밀하고도 적극적인 포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단 사이비 종파에 대한 경각심 고취뿐 아니라 구체적 대안과 실제적 대처를 통해 이단의 공세를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이단 종파들

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이 주 원인이다. 한국교회가 교회 분열과 세속화 가운데 근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신뢰도가 추락했고, 그 반작용으로 이단 용인과 급증 환경을 쉽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이단 종파는 한국교회에 망각하고,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교리나 행습을 강조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운 총장은 “포스트모던 시대, 사변적·극단적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환경과 트렌드 확산도 주 원인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짓된 확신을 안겨주는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선 이단 확산에 심각한 위기의식과 강력한 대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개교회·개교단 부흥과 발전만 바라보지 말고, 각 교파의 신학적 관점과 해석을 넘어서, 다시 말해 사도적 가르침에 일치한 복음주의적 신앙고백 가운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실제적 이단 퇴치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한국교회와 연합해 이단을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 전문적 이단 상설기관(컨트론타워)을 설립하는 실제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기독교 언론 매체도 이단 대처에 적극 나서서 복음의 방파제와 나팔소리의 역할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긴 역사를 가진 기독교 중앙지조차 분별력을 잃고 이단의 경계심과 경계선을 쉽게 헐고 마치 이단을 비호하고 홍보하는 듯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일”이며, 넷째로 “이단에 대한 실제 대처 능력을 기르고 배양하도록 신학교육 커리큘럼 개선이 필요하다. 이단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를 대응할 전문 신학교육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학대 커리큘럼 필수·공통 과목으로 이단 과목을 포함시켜, 예비 목회자 신대원 때부터 이단에 대한 이해



와 경각심, 분별력과 대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로 “이단을 쉽게 식별하고 배격할 수 있는 평신도 이단예방 강화를 교단 차원에서 개교회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성경 66권 외에 부가적 계시를 주장하며, 복음신앙을 왜곡·훼손하는 반성경적 거짓 계시, 위경(偽經) 사조와 그것을 전파하는 이단 세력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이단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들쭉시고 다니므로, 각자 책임으로 알아 이 땅의 이단 퇴치와 박멸을 위해 순교적 각오로 헌신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후 학술대회에서는 목창균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가 ‘기독교 교리사로 본 이단의 특징과 성격’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목창균 박사는 “한국교회는 14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이단 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이단 판결을 하거나 그것을 번복한 사례도 많이 있다”며 “성경 해석이 다르거나 신앙 양태가 다르다고 다 이단은 아니다.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며, 틀린 것도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기 때문(어거스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사가들은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며 “이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며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 해결에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 교리사에서 어떤 견해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대 교회에 나타난 유사한 현상을 참고해 대처하는 것이 사도적 신앙 계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승구 교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완료된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특별게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계시가 더해진다고 주장하는 모든 집단들은 다 이단이다. 구원된 전통과 교황의 권좌에서 선언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천주교회가 명확히 이단이라면, 오늘날도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집단들도 다 이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경에 더하는 것이 이단이듯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을 제

거하는 것도 역시 이단이라고 해야만 한다”며 “과거에 성경의 내용 중 일부를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려 하던 분들을 이단이라고 선언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기에 각종 이단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탁지일 박사는 “이단 문제는 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단 단체와 관련된 사건이 한국 사회를 꾸준히 뒤흔들고 있지만,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이단 문제에 법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공권력과 언론은 사후처리와 사후보도 역할에 머물러 있다. 교회가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한 이단과 정제성을 잃은 교회, 둘 중에 세상은 어느 쪽을 좋아할까,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가 비성경적 이단인 것은 분명하나, 헌혈과 거리 청소 등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이들에 대처하려면,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로 인해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 웬지 꺼림칙하다”며 한국교회가 처한 이단 대처의 딜레마를 소개했다.

학술대회는 이사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감사패 전달, 임성택 전 강서대 총장의 폐회기도로 마무리됐다.

제74차 총회 제7회 임원회 개최

“교단의 미래 세대 준비에 매진-코로나·독감 등 주의” 당부



엄하석 목사
예하성 총회장
주성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지난 12월 2일(화) 오전 11시, 예수은 선교회(담임 문찬우 목사) 회의실에서 제74차 총회 제7회 임

원회를 개최하고 교단 현안 보고와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임원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되어 재무 최정식 목사가 요 1:12 말씀을 본문으로 ‘뉘세자로 삼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교단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확장에 기초해야 한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배는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2부 회의는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에 이어 총무·회계 보고와 다양한 청원 안건이 논의되었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부흥사회(회장 김견수 목사)가 지난 11월 17일~18일 양일간 부산 황령산 일대에서 진행한 가을산행기도회를 보고했다.

계속해서 재무 최정식 목사와 회계 백영자 목사는 11월 수입·지출현황을 보고

했으며, 결산 자료는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

주요 안건 심의에서 교역자 가입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명칭 변경, 교회전출임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 은퇴 및 폐쇄 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다.

또한 사이버신학원 졸업예배가 오는 12월 18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사이버신학원(원장 조용목 목사) 주관으로 열리게 될 2026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74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의가 2026년 1월 8일(목) 개최됨을 알리고, 2026 전국 청년동계연합수련회(2026년 3월 1~2일 1박 2일)가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청년국(국장 오세준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교단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6일(목) 10:30~15:00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전체 총회원을 대상으로 개최됨을 보고했다.

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모든 지방회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단의 비전을 힘차게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코로나 감염병과 독감이 다양한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고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에 천환 목사 선출

“보수 연합기관의 본령 세우고 복음 중심의 정체성 지키겠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12월 4일(목)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천환 목사(예장 고신 전임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천환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저에게 과분한 자리이지만 소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자신을 낮추어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현장을 흔들고 있다”며 “한교연이 보수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복음주



의 단체들과의 교류 확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에도 힘을 쏟을 뜻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감사 및 재정 보고와 함께 공로패·축하패 수여가 이뤄졌으며,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임원 및 감사 인준 등 세부 안건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한 ‘제15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신앙의 본질을 놓쳤던 과오를 회개한다”며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과 복음 선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101개국 154개 언어로 4,137,088부 보급

대한성서공회, 제144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 제144회 정기이사회가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기도회에서는 전 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가 ‘선을 긋는 사람들, 선을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제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 대표로 김장환 신부(대한성공회)가 소개되고, 권의현 사장의 출판·보급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유산을 기부한故 신영오 후원자(연

세대 명예교수)의 유족 대표 조속자 교수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이두희 총무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 대표로 김장환 신부(대한성공회), 류명렬 목사(예장 합동), 남상준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영훈 목사(기하성), 양병희 목사(예장 백석)가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선임되었다. 이어 광철영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권의현 사장을 재 선임

했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 대표들, 미주 지역 성서 출판 보급 확대 태스크포스 팀, 탄자니아, 몽골 성서공회 총무가 본 공회를 방문하여 성서 출판 및 보급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본 공회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아프리카 총무 회의, 크로아티아에서의 서발칸 성서공회 출판 회의, 칠레에서의 스페인어 성경 보급 워크숍에 참석하여 성경 제작과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멕시코 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출판 회의와, 본 공회가 제작한 출어 어린이 성경 보급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레바논과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중동지역 성서공회들과 성서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급년에는 지난해보다 34,767부가 증가한 349,341부의 성경을 보급했다. 이중 「새한글성경」은 52,288부가 보급되었다.

한장총, 한국 장로교140주년 미래포럼 개최

전임대표회장 및 총회장 모임 통해 발전 방안 모색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지난 12월 2일(화)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국 장로교선교 140주년 미래포럼을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했다.

한장총 전임대표회장들과 총회장장 총무/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장총이 교단간의 연합으로 장로교 정체성을 살리면서 성령운동을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다음세대를 위해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신용현 목사(개혁개신 총회장)의 사회로 권오삼 목사(보수 총회장)가 기도하고, 엄신형 목사(한장



총 제24대 대표회장)가 설교와 축도를 했으며,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장로교회가 들어온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

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의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별히 한장총 증경대표회장님들과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판정

한기총 김정환 전 사무총장, 면직 논란 일단락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전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지방법노동청으로부터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부턴 이어져온 사무총장 면직 논란이 사실상 종결되는 분위기다.

김정환 전 사무총장은 한기총 임원회의 면직 결정이 부당하다며 최근 서울지방법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신청 요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분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심리를 종료하는 조치다.

앞서 한기총은 지난 9월 23일 제36-6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사무총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당시 임원회는 조직 내 갈등 해소와 행정 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사무총장 측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일정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의 이번 판단에 따라 한기총의

면직 조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혼선을 정리하고,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안정과 연합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기총은 최근 대사회·대정부 활동 강화와 한국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내부체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안의 정리가 향후 연합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제30차 정기총회

신년·국가기념일 연합예배 공동 주관 등 주요 안건 처리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11월 27일(목)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996년 1월 23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개혁신교단협의회는 올해 30번째 총회를 맞아 임원과 회원단체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회무를 진행했다.

예배는 양정섭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 이승권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의 기도, 김권현 목사(예장 합동부흥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권현 목사는 수 1:10-18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다. 공동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박형렬 목사(예장 개혁신교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무처리가 이어졌다.

회무는 양정섭 목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사 허용준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회무는 절차보고와 전 회의록 채택 후, 대표회장 업무보고, 총무이사 사업보고, 재무 및 감사보고를 모두 유인물대로 받은 것으로만장일치 결의했다.

신안건 논의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결산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통과시켰다. 또한 △2026년 신년하례예배는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공동

주관 △3.1절 연합예배는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주관 △6.25전쟁 기념 연합예배는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주관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주관 등 세 단체가 협력하여 주요 국가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기타 안건과 세미나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모든 의결은 박형렬 목사 동의와 임정태 목사 재청,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확정됐다.

의장은 고전 4:1~2 말씀을 봉독하고, 참석자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드림으로 제30차 정기총회를 마쳤다.

특별기획 다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방송

CTS 기독교 TV 140년 전의 사랑, 오늘의 사명으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한국 선교 140년의 유산과 오늘의 사명을 조명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를 12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방송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드리미재단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교육·의료선교를 담았다.

본 다큐는 드리미학교의 기독교 대안교

육, 캄보디아 뱀바꽃 학교의 교육지원과 무료급식 프로그램, 현지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진료버스, 어린이 성경 캠프, 국제대학 및 기숙사 설립 등 다양한 선교 현장을 조명했다. 또한 한국 교회와 기업 그리고 선교 공동체가 협력해 세대와 국경을 넘어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해온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았다. 한편 매년 100여 회 이상 진행되는 글

로בל 복음사경회를 통해 전 세계 약 190만 명이 복음을 듣는 성과도 함께 소개된다.

CTS는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 교회와 기업이 함께 이뤄온 선교의 결실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이라며 “교육·의료·구제 사역이 한 지역과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생명은 소중해’ 교재 개편

어린이 대상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마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는 초등학교 대상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프로그램 ‘모든 생명은 소중해’의 교재를 새롭게 개편했다.

새 교재에 수록된 그림책은 △저학년 동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푸른 별> 자신의 별 조각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푸른 별의 이야기 △고학년 동화 <붉은 돌고래> 심장을 붉은 돌고래에 빚대어 장기이식의 과정과 의미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 등 두 편이다.

두 동화는 한국영상대학교 미디어보이스학과 학생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아이들은 생명나눔의 개념을 다층적으로 경험했다.

2019년 국내 최초로 실시된 ‘모든 생

명은 소중해’는 지난 6년간 618개 학교 5만 821명의 학생들을 만나며 초등학교생의 눈높이에 맞춘 생명나눔 교재 개발을 거듭해왔다. 특별히 올해는 홍익대학교 미

술대학과의 협업으로 생명나눔 그림책 2편을 제작하여 장기기증인이 실천한 나눔의 가치와 장기이식의 과정 및 의미를 이해하도록 꾸몄다.



기아대책, ‘가정박청소년 리서치 보고서’ 발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제시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청소년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고위험군 가정박청소년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담은 ‘가정박청소년 리서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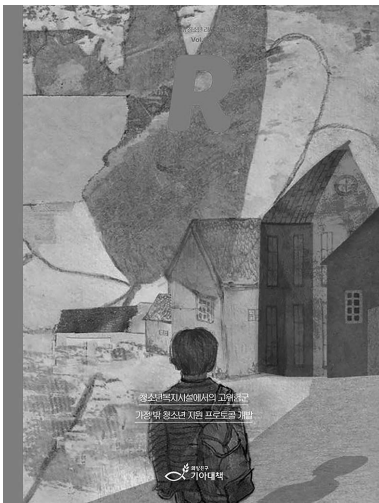
기아대책이 청소년 쉼터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쉼터 이용 청소년 중 절반 가까이 고위험군에 속하며, 체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유형도 다양한 데다, 보호시설마다 대응 방

식에 편차가 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지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아대책은 자살위기·중독·경계선 지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지닌 고위험군 가정박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다룬 ‘가정박청소년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 현실을 심층 조사하는 R-리포트 시리즈의 일환으로, 학대·방임, 폭력, 가정 해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1

생명의 말씀

1



김 바 울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 지방회장
- 순복음진리교회 담임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

이어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도 같은 믿음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마 8:11~12)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3)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극찬을 들었는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는 한 백부장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어떻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

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 그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나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듯,

자신 또한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으니 굳이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으로만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2.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이 나올 것을

백부장의 믿음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믿음, 곧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오직 이 백부장만이 그것을 알아 보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3.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을 향해 바다에 빠지라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여,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하라하시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김현, 이주희, 노종만, 김우영, 한민수, 조인철, 황정아, 이훈기, 임오경)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방송이나 왜곡되고 편향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방송물에 대하여 바로 잡는 심의(審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은 삭제하고, 뽕판 지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들이 낸 의안에 보면, 제33조(심의 규정)에서 제2항에 각호를 수정하거나 신설했는데, 기존의 제5호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8호에서는 기존의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지금 현행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와 법률 개정으로 촘촘하게 역차별의 그물망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방심위의 진짜 중요한 기능인 방송물 심의의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변명으로(입법발의 제안 이유)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의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제안 이유를 더 살펴보자.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힘이 센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참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죽하면 대형 공영방송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 현실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고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대부분 특정 정파에 치우침과 쏠림현상이 현저하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이런 방송 현실을 타개하려면, 방송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면서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하는 듯한 태도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단견(短見)으로 보면,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겠지만, 긴 안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의 고유한 역할들이 살아야 하고,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탄핵과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당시 대통령을 탄핵 시킨 헌법재판소의 정치권에 대한 경고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

동정



윌튼 위커 장군의 손자 샘 위커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1920~2020)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승리의 시작’을 제작한 권순도 감독이 같은

6.25 전쟁영웅인 윌튼 위커 장군의 손자 샘 위커 씨와 환담했다. 샘 위커 씨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출판기념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권순도 감독은 이 출판기념회를 찾아가 그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종철 목사 일산기독교연합회장

일산기독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및 회장이·취임식이 지난 12월 4일(목) 일산 큰빛교회에서 개최돼, 김종철 목사(일산 큰빛교회)가 회장에 취임했다. 개회 예배는 부회장 이재은 목사의 인도, 김유영 목사의 기도, 이윤태 목사의 성경봉독, 특별찬송, 전 회장 김남웅 목사의 설교, 전종철 목사의 광고, 전임회장 육기환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필요한가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이 12월 8일(월)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은퇴 선교사 주거지원 나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은퇴 후 본국으로 돌아온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주거 지원과 사회보장 안전망 마련을 위한 ‘돌아온 선교사의 피난처’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을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시원 홍보대사는 “은퇴 선교사의 주거 문제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성탄절 메시지

생명과 구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예수님은 혼란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나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단 하나, 의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참된 사랑은 멀리서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말 대신 화해를 돕는 말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 대신 치유를 일으키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올해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본을 보이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겠노라고,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무너진 사랑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날입니다. 지친 국민의 마음 위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임하고, 대한민국이 대립이 아닌 화합을, 분열이 아닌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새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사랑과 섬김으로 나라와 이웃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 최인숙 목사, 총무 : 김일엽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엄하석 목사, 총무 : 오세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 배재한 목사, 총무 :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 안상운 목사, 총무 : 김명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 정덕화 목사, 총무 : 최달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 우표자 목사, 총무 : 윤영숙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 김종숙 목사, 총무 : 송순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 한성복 목사, 총무 :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 강문중 목사, 총무 :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 최상열 목사, 총무 :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 이윤숙 목사, 총무 :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 천점수 목사, 총무 : 안효영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최병찬 목사, 총무 :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 오용자 목사, 총무 :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김태진 목사, 총무:송계바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 홍정식 목사, 총무 :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 박태영 목사, 총무 :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 이동진 목사, 총무 : 김화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 김호기 목사, 총무 :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5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et.net

성경적 신앙생활과 성령충만, 복 받는 신앙 강조

강사:부흥사회장 김건수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특별 부흥성회 성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 소속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는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아 특별 부흥성회를 열고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와 영적 각성을 안겼다.

성경적 믿음에서 성령충만까지 부흥성회 첫째 날인 12월 3일, 김건수 목사는 '가장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성경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 원리를 제시해 큰 공감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무장할 것을 강력히 권면했다. 셋째 날인 5일에는 '마중물의 이적'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전하며, 특히 십일조와 감사의 헌신을 '마중물'의 비유로 풀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바른 물질관과 헌신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사과 비전을 전했다. 3일간의 성회는 말씀뿐 아니라 간증, 특송, 찬양과 헌금 특송 등 은혜로운 순서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임웅재 원로목사(전임 총회장)와 김건수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며 영혼의 복을 선포했다.



광양시교회연합회 세미나 개최, '바른 복음·오직 성경' 회복다짐

최형택 목사 바른 예배와 성경에 충실 강조...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동참

광양시교회연합회(회장 이한성 목사)는 지난 12월 5(금) 오전 10시 광양은혜와 진리교회(담임 최형택 목사)에서 연합회 임원진이 함께한 가운데 '바른 예배와 성경에 충실하자'라는 주제 아래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바른 예배와 성경중심 신앙으로 새로워질 것을 함께 결단했다.

가하는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에 대한 공감과 실천 의지도 함께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있는 작은교회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교회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가 한국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다.



광양시교회연합회는 이번 모임을 통해 바른 복음과 오직 성경이라는 신앙의 본질 위에 다시 서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탁구 통한 선교사역 확장'

예하성 탁구선교회, 은혜와찬양교회에서 열려

탁구선교회

예하성 스포츠선교회 산하 탁구선교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12월 4일(목)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중리서로 41번길 45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탁구선교회 정기모임을 갖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인 탁구를 통한 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운동하며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따라 삶의 방향과 결말이 달라진다. 세상의 조건이나 물질,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강조했다.

교단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목회자세미나

날 짜 2026년 2월 26일(목)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안양성전)

시 간 오전 강의 10시 30분-12시, 오후 강의 13시-15시

주 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한국기독교한림원·서울신대 ‘한국교회와 이단’주제 공동학술대회

개회사



정 상 운 박사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여는 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교파형 선교로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오늘 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단종파들의 침범을 받고,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 무방비로 넘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식의 안일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신앙이라는 미명아래 가정을 파괴하고, 성추행과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사이버 이단 종파들의 급증은 교회를 백안시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해주고 있다.

이단종파는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오대양사건(세모)의 구원파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린 다미선교회와 같은 사이버 종교집단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 문선명파와 전도관(천부교)을 비롯하여 조희성의 승리제단(영생교), 이초석의 한국에루살렘교회(땅끝까지 예수전도단) 등 자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 종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수없이 널려있다.

작금에 들어와서 2014년 세월호사건과 연루된 구원파, 이어서 2018년 은혜로 교회 신유주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과 신천지 이만희, 성락침례교회 베뢰아 김기동, 얼마전 “나는 신이다”넷플릭스 방영을 통해 다시 드러난 JMS 정명석 등을 생각하면 단기간에 급성장한 한국교회에 못지 않게 동시에 가장 많은 이단과 신흥사이비 종교가 일어나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종교적 지형을 다시금 심각하게 된다.

과거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관련 이단 종파를 9 계열 65개로 분류한 바 있다. 이단들의 부풀린 세력 과시와 폐쇄적 구조로 정확한 실제적 통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효는 이단연구기관에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데 대략 적게는 150만명에서 200만명 전후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이버 이단종파들도 나름대로 한국종교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지금 이 시간도 사회적 물의를 따르며 비판이나 냉소적 시선과 상관없이 일종의 자신들만의 고고한 선민의식에 사로 잡혀 은밀하고도 적극적인 포교를 통해 현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단 사이버종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실제적인 강력 대책

를 통해 이단의 공세를 물리쳐야 한다.

1.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단 연구에 대한 관점은 엔로드(Ronald Enroth)가 언급한 것과 같이 극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비롯하여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 관점 3가지로 구분된다. 이 3가지 입장에서 우선시 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관점은 당연히 신학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일반 사회학자와 달리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관점이 정통적인 입장에 결정적이 되는 근본적인 쟁점과 원인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1)지난 과거 한국교회에는 자신의 신학적 관점(입장)과 다른 견해를 다양한 시각의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바라보고, 믿는 입장은 정통이고, 이와 다른 입장은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잘못된 견해이다.

2)이단에 대한 통속적 정의는 처음과 달리 끝이 다르다는 한자(異端)이란 의미로 해석하나, 이것은 이단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도적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다. 바우어(W. Bauer)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단은 근원으로부터의 복음신앙에서 이탈된 잘못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3)원래 이단을 의미하는 말은 희랍어 하이라시스, 즉 선택과 불일치의(choice, discord, option)의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로서 현재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차 이 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탈하려는 분파나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가르침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벨후 2: 1, 멸망케 할 이단, destructive Heresy).

4)이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적 가르침과는 달리 정통교리로부터 이탈된 다른 거짓된 가르침과 다른 복음(고후 11: 4)’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단은 기독교적 큰 범주로 볼 때 구원이 없는 모든 종교를 이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칭 기독교라 하면서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유사기독교, 사이버 거짓 기독교(적그리스도 추종세력들)’를 멸망케 할 이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한국사회 이단종파의 급증 원인

교회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단들의 발생은 어느 시대에도 있어 왔다. 때와 시한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으로 인해 이단 종파의 배후에서 미혹하는 마귀(사단)의 역사가 더욱 치열해짐으로 이단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마 24:24, 고후 11:13-15, 요 8:44).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의 발생 원인과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조점의 특이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사회의 이단의 급증요인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1)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이 급증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 분열과 세속화 가운데 교회

본래의 근본적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그 반작용으로 이단 용인과 급증의 환경을 쉽게 만들어 준다.

넬슨(Nels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종교체계에 대한 믿음이 추락하여 기존교회가 사회문화적 제도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때, 이단은 용인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말을 한국교회는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이단종파는 한국교회가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리나 행습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시킨다.

3) 우리 시대 매사에 상대성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던 시대, 사본적이며 극단적인 자유주의신학과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적 환경과 트렌드 확산이 이단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단교수들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말하며 불확실성시대에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통해 거짓된 확신을 안겨주는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남발한다.

4)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단종파의 급증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하고 정보통신기술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거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단종파의 편향된 콘텐츠를 공유하게 함으로 이단의 왜곡된 거짓교리가 무차별 침투되고 유인하는 하이브리드식의 이단 포교 전략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단종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단 확산에 심각한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단이 급증한 한국사회 현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대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적 대처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단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처가 아닌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끝나는 이단규정 차원의 대응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그 반대로 이단의 전방위적 침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개교회, 개교단 부흥과 발전만 바라보지 말고, 각자의 교파적인 신학적 관점과 해석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 사도적 가르침에 일치한 복음주의적인 신앙고백가운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이단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대응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일어나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이단을 단일대오로 총력대응하는 한국교회 전체 차원의 전문적인 이단 상실기관(콘트롤 타워)을 설립하는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단 세력이 우리 사회에 반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킬 때에만 조건반사적으로 거기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즉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와 이대위협의회를 통해 이단 대응과 연합적 활동을 해왔지만, 출론 이단 판정에 그치고 경각심 강조로 일관해 왔다. 이단 문제 발생-사회적 물의와 이에 대한 대응-해제 식의 마치 산불 끄기식의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단순 대응 매뉴얼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단 대처의 전 문화와 이단에 대한 정보 통합과 공유 체제를 강화시키고 한국교회 교단간 그리고 개교단과 개별 교회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의 연합 네트워크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대위와 한국교회 이대위위원장협의회와 역할을 한 차원 높여 진일보한 지금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초교파적 연합 성격의 상설 전문 이단대처기구(기관)를 설립해야 한다. 유럽 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집단방위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처럼 일단 규정 뿐만 아니라 일단 예방과 일단 세력 근절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는 복음주의 교단들의 강력한 연합대처기관(기독교학술기관, 신학교 전 공교수들과 이대위 목회자, 이단연구소 연구진으로 구성)이 절대 필요하다. ①연구(전문교수 교리 분석과 이단연구) ②교육(목회자와 신학생, 세대별 일반인) ③상담(이단탈퇴자, 피해자 상담) ④홍보(언론과 온라인) ⑤정책(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 미디어 매체활용, 교단별 연합대응 시스템) ⑥법률(법률자문과 피해자 조치) 분야식의 종합적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합이단대응기관 신설을 제안한다.

이단들은 기존 교단 명칭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며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원화된 ‘한국교회 표준 이단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가능한 가톨릭교회의 이름을 도용한 이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개교단에 각기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있지만 전문성 문제와 각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서 가져다주는 한계, 그리고 한국기독교 연합단체의 분열로 인한 구심점 상실은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대는 적어도 이단 문제에 한해서 만이라도 각개대응(各個大應)식의 소모적이고 경제적인 비효율적인 대응체제에서 단일대오(單一隊伍)의 강력한 연합대처체제로의 전환을 한국교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이 피살이후 사이버 이단종파 대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한기총 사이버대책 위원장을 지낸 최해일 목사의 다음의 글은 의미심장하다.

“탁명환 선생. 그는 한국교회를 이단과 사교의 늪에서 건져내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감한 전사였다. 그가 테러를 당할 때마다 한국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이 분노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를 높였으나 대안은 없었다. 오늘 그가 혼자서 외롭게 싸우다가 쓰러진 데는 한국교회(특히, 개신교)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필자가 한기총 사이버 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종종 보면 동저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꼴을 보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자주 있었다. 한국교회와 이래 가지고서야 이단의 밥이 되고 사교집단의 농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교계의 근심한 연합운동을 전개하자. 이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세계 어느 민족도 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단합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언론 매체도 이단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대 복음의 방파제와 나팔수 역할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일부 기독교 관련 언론매체에 해당하지만 심지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지조차도 분별력을 잃고 이단의 경계심과 경계선을 쉽게 허는 마치 이단을 비호하고 홍보하는 듯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 오히려 교계 관련 언론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면을 늘림으로서 복음선교를 위한 방파제와 나팔 역할을 다하는 미디어선교의 교두보로 앞장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언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역할과 비중이 심히 크기 때문이다.

넷째, 이단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 능력을 기르고 배양하는 현행 신학교육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단이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이단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신학교육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변증가와 호교론자들로서 당시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단들과 진리의 싸움을 하며 초대교회를 지키고, 사수하였다. 목회학, 선교적 실천과 적용을 배제한 지극히 사변화된 이론 중심의 신학은 교리 답습과 지성의 유희로 끝날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나라 확장을 도모시키고 중시하지 않는 신학은 진정한 참된 복음주의신학이 아니다. 차체에 기독교 신학대학 교수들도 이단에 대한 깊은 연구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이단의 대처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 기초 전공영역에 필수과목이나 공통과목으로 이단종파사(이단운동사)와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비 목회자인 신대원생 때부터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경각심, 분별력과 대처 능력을 배양해야 일선 목회 현장에서 힘 있고 바르게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에 바로 서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이단을 쉽게 식별하고 배격할 수 있는 평신도 이단예방 강좌를 교단 차원에서 개교별로 시행해야 한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다문화·기후대응·중독 사역 강화한다”

미래목회포럼, 2026년 중점 과제 발표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대표·이사장에

황덕영·이상대 목사 유임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은 12월 4일(목)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역으로 다문화(이주민) 사역, 기후·환경 대응, 중독 사역을 선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대표에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이사장에 이상대 목사(서광교회)를 각각 유임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국교회에 변화를 제시하는 기관 되겠다”고 밝혔다.

황덕영 대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나가겠다”며 “내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기도와 의지로 함께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상대 이사장은 “대표 2년, 이사장 4년제를 맡으며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낀다”며 “2026년에는 다음 세대, 미래 목회, 공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 한국교회에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총회에서는 유임 임원 인준과 함께 신인 중앙위원회에 이필산 목사(청운교회), 김진형 목사(광운교회), 장중만 목사(하늘비전교회)가 위촉됐다. 2025년 제4회 ‘올해의 기자상’은 한국성결

신문 황승영 국장, 고향교회 수기 당선작은 서창범 목사(구암교회)가 각각 수상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내년도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 다문화·이주민 사역의 체계적 지원,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교회의 책임 강화, 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역 확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위원회 주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전문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공공성강화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매년 시행 중인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확대해 농어촌 교회 지원과 농도 교회 간의 정기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는 황덕영 대표 사회로 회순채택, 회원평명 후 중독사역위원장 송용현 목사의 개회기도, 이상대 이사장의 정기이사회 결의안 보고, 백낙균 사무총장의 사업보고, 김희수 목사의 감사보고, 양인순 목사의 회계보고, 정광 일부 개정 및 안건 토의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취임 및 위촉 감사예배에서는 다문화사역위원장 김인환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오정호 목사(예강합동전임총회장)가 설교했다.

美 연방법원 여성 수감자들의 손을 들어줘

“트랜스젠더, 여성전용교도소 공간 출입 금지” 판결

미국 텍사스에서 여성 전용 교도소 내 공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연방법원이 여성 수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텍사스 포트워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드니 피츠워드 판사는 포트워스 소재 여성 교도소인 연방 의료센터 카스웰(FMC Carswell) 측에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여성 주거 구역 및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보호 공간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여성 수감자 론다 플레밍과 미리엄 크리스탈 에레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연방교도소국(BOP)의 정책이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수정헌법 제1·4·5·8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 수감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트랜스젠더로 분류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샤워실을 빈번히 이용하며 성적 접촉을 이어갔다는 진술과, 정신질환 여성과 함께 발가벗은 채 감방을 공유했다는 사례 등 성폭력 피해 사례가 포함돼 있다.

플레밍은 자신을 고통한 남성 수감자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양성애자”라고 말하며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에레라 역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샤워 중인 나를 지켜보고, 소독 후 욕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남성이 여성 교도소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FMC 카스웰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5 리본데이’, 성탄 앞두고 생명 나눔의 끈 잇다

기증인·유가족·희망등록자 200여 명 참석… 감동의 섬김 이야기 울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가 연말을 맞아 개최한 ‘2025 리본데이(Re-born Day)’가 지난 11월 29일(토) 서울 종로구 엠스테이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 시 장기기증인,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와 후원회원 등 200여 명이 함께해 한 해 동안 이어진 생명 나눔의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기증인의 실제 이야기로 만든 뮤지컬 선보여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창작 뮤지컬 ‘네버엔딩스토리’의 대사가 울려 퍼졌다.

“여보, 나의 숨결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뛰고 있어…”

이 대사의 실제 주인공 김충호 씨(56)는 2013년 아내 박선화 씨를 뇌사로 떠나보낸 뒤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이어 2014년 성탄 전날에는 자신도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번 공연의 모티브가 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던 홍효순 씨(60)도 함께해 더 큰 감동을 더했다.

뮤지컬 ‘네버엔딩스토리’는 엠스테이지의 재능 기부로 제작돼 이번 리본데이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



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로비부터 뜨거운 참여, 생명 나눔의 가치 체험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로비는 참석자들로 붐볐다. 생명 나눔 굿즈 마켓, SNS 인증 이벤트, 생명그린 그림책방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리본팔찌 캠페인 큰 호응… “생명이 다시 태어납니다(Re-born)”

유재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기증인과 유가족의 용기, 그리고 생명 나눔운동을 지지해 준 많

은 이웃들 덕분에 올해도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동엽 상임이사는 사업 보고를 통해 리본팔찌 캠페인의 성과를 소개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Re-born)’는 의미의 리본팔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월 25일 기준 866명의 새로운 후원자가 참여해 생명 나눔의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성탄을 앞두고 이어진 생명 나눔의 고리

운동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때이기에, 생명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기에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6면에서 이어짐

이단의 배격은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견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평신도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기독교 교리를 이단교리와 비교하여 일정 시간 특별교육함으로써 독감백신과 같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단 백신을 맞게 함으로 건강한 행세를 길러 주어야 한다. 영세 받기 전에 기본교리에 대한 과정을 필수로 하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인들이 이단종파에 잘 현혹되지 않고, 개신교로 전향하는 일이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닫는 말

기독교 이천년사는 초기 기독교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인 복음을 그대로 수호하고, 전하려는 순교자의 피로 인해 지켜져 왔다. 교파형 한국선교 140주

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성경 66권 이외에 부가적인 계시를 주장하고 사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근본적인 신앙신조를 이차적인 것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인 복음신앙을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거짓 계시, 위경(偽經)사조와 그것을 전파하는 이단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하거나 안주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는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이단예방과 이단 박멸에 위한 초교파 연합대응기관을 만들어 강력한 이단퇴치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단의 세력들은 무종교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잠복해 있고,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영혼을 쓰러뜨리기 위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을 말하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들쭉고 다닌다. 따라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기보다 각자의 책임으로 알아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이 땅에 이단퇴치와 박멸을 위해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함으로 이 시

대에 우리에게 주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오늘 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시대 이단 대처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단퇴치와 박멸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바쁘신 시간이지만 귀한 발제를 준비해주신 목장총 총장님, 이승구 박사님, 탁지일 교수님 그리고 논평하실 박명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서울신대로 조정하여 공동 학술대회를 열도록 협력해주신 황덕형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부터 오셔서 축사를 맡아주신 최대환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님과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신대, 국민은행으로부터 발전기금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지난 11월 14일(금) 국민은행 양평지점(지점장 홍현미)으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1천2백만 원을 기부받았다.

기부금은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섬겨주시는 국민은행에

서 아신대에 귀한 발전기금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장은 발전기금을 전달한 홍현미 지점장과 김영란 부지점장에게 학교를 자세히 소개하고 “발전기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지도자를 세우는 아신대의 사역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성서공회, 몽골에 성경 기증

총현교회의 후원으로 몽골에 2,720부 보내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이하 공회)가 지난 11월 21일(금)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의 후원으로 몽골에 ‘몽골에 성경’ 2,720부를 보내는 기증예식을 공회 본부에서 가졌다. 총현교회는 작년 4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아르메니아에 ‘아르메니아어 성경’ 1,520부를 기증한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했다.

이번 성경 후원은 총현교회 세무위원회 성경통독부가 주관한 특별 캠페인으로, 2022년부터 매년 이어온 4번째 성경 통독 행사를 마무리하며 진행되었다.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를 몽골에 성경을 보내는 후원으로 나누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총현교회 성경통독부 지도 목사인 박성덕牧사는 “몽골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몽골성서공회 바야르 마그나이 총무는 영상인

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성경은 몽골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성경을 후원해 준 총현교회에 감사전을 전했다.

공회 화재민 총무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몽골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성경은 먼 나라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한 교회를 세우며 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몽골 땅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대했다.

몽골에 전해지는 《몽골어 성경》 2,720부는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하고, 말씀에 기반한 교회와 목회자를 세워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유목민들이 흩어져 있는 외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어, 몽골의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통로를 열어 줄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원장

‘기도소리를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라’

거리의 악사들은 합창계 노래하는데 이 시대의 광대들은 춤추지 않는다. 아 고뇌여, 그대의 머리를 들라. 잔인함은 인간의 마음을 지녔고 질투는 인간의 얼굴을 가장한다. 공포여 그대는 인간의 신선함을 아는가? 그리고 흑암의 비밀은 인간의 웃을 여미는가?

영혼의 고향 태고에서 한 줌 흙으로 기상하리라. 보라 잘 짜여진 인간의 굴레는 잘 다듬은 철이요, 그 웃은 불타는 대장간 일전데 결국 추악함으로, 굶주린 분노로 거여이 봉인한 용광로 그대 일굴이 되었구나.

아 기억하라 고뇌여 자비는 인간의 마음을 지녔고 사랑은 인간의 고상함을 평하는 그리스도로 웃임었다면 연민이여 두 손을 벌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흐르는 청록 향연의 그릇에 신록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리라.

그리고 나는 오늘 넘쳐흐르는 주의 사랑 천상의 신비 십자가의 길 따라 한 송이 꽃 예수

로 새롭게 피어나리라. 오늘도 내일도 한 송이 꽃 예수의 향기 따라 십자가의 길 영원히 피어나리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히 피어나리라.

이번 주도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초청으로 천안 부흥교회와 광주성은동산 기도원 대성회 때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의 기도가 있기에 그들의 성령충만한 기도가 있기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골짜기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기도하는 소리가 있기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방방곡곡에서 전도하는 그소리가 있기에 특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가족세트전도 대표 박영수 목사의 영혼구원의 구령열기가 있기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회복의 공동체를 꿈꾼다” 대안 마을 ‘노을동산’ 설립



하늘소망교회 박형희 목사

은퇴자·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세대 통합형’ 공동체 제안
친환경 주거-자립 생산-전인 돌봄을 아우르는 구조 제시

개인주의 확산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고독’이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자리 잡은 시대,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유무상통의 복음 정신을 현대적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대안 공동체가 등장했다.

하늘소망교회(예장백석) 박형희 목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기독교 생활 공동체 ‘노을동산’의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되는 신앙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가 제시한 ‘노을동산’의 핵심 비전은 ‘회복’이다. 그는 “오늘의 사회 구조는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점점 더 파편화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공동체는 갈라진 개인을 다시 연결하고 잃어버린 이웃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영적·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은퇴자들을 위한 실버타

신앙 교육·직무 교육·공동체 생활 훈련을 동시에

운이나 귀농 단지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을 시도하는 신앙적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세대 통합과 돌봄의 공동체, 새로운 사명 회복 돕는다

노을동산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세대 통합형 마을로 설계됐다. 은퇴자, 조기 퇴직자, 사회적 취약계층,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청년 창업자 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기술과 경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소명(Calling)’을 발견하도록 돕는 구조다.

박 목사는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며 “세대와 계층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배우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저비용 주택으로 생태적·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주거 구조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약 15평 규모의 리시아산 목조 조립식 주택을 도입해 건축비를 약 7,500만 원대로 낮추고, 입주자가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셀프 빌드(Self-Build)’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스태양광 기반 에너지 자립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생태 습지 기반 자연 정화 시스템 등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태 마을 모델을 제시해, 노후나 귀촌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기독교 생태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총도 입주 가능한 공공협력형 공동체

특히 박 목사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포용하는 공동체를 강조했다.

“평균 자산 2천만 원 미만의 계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보증 대출 모

델을 개발 중”이라며, 기존 고비용 실버타운이나 귀촌 주택과는 전혀 다른 복지적·선교적 접근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서려는 시도다.

초대교회 경제 생태계 구현… 해외 농업법인과도 협력

노을동산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중심 가치는 ‘자립’이다. 공동체는 외부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 전통 장류, 특화 작물 생산 등을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라오스·미얀마 등 해외 농업법인과 협력으로 원재료 확보와 글로벌 유통망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 운영비를 제외하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유무상통의 경제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예배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생활화’ 추구

신앙생활 관리 또한 노을동산의 중요한 축이다. 박 목사는 “하루의 노동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공동체 내부에 중앙 연수원을 설립해 신앙 교육·직무 교육·공동체 생활 훈련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를 돌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인적 돌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원형 회복”

박 목사는 “노을동산”은 단순한 마을 조성 사업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원형을 세우는 운동”이라며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참여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교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오직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마 16:18)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들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가장 큰 변화가 1517년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즉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가 믿음과 성령으로 인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차츰 로마 정치성직자들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칼빈(Calvin)이 말한 대로 로마교회(천주교회) 교황은 3층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의 큰자식'이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돈이 더 필요해서 면죄부(죄를 사하여 준다는 교황 명의의 문서)를 판매했는데, 돈만 내면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데 이는 돈이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속임수였습니다.

이는 천주교회가 사기꾼, 도둑, 강도짓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 않고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설교는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역사가들이 종교개혁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 중에서 특별히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칼빈은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로마 정치 사제들의 교회에서 본래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오직 말씀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

오직 그리스도 (Sola Christos)

이 5가지의 '오직'은 놓칠 수 없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새롭게 되게 해야 합니다.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하나님 선물

형제 눈속 티 보면
내 눈속 들보 안보이고
내 눈속 들보 보면
형제 눈속 티 안보이네.

성령안경 끼고 보면
남 귀하게 보이고
성령안경 벗고 보면
나 귀한 것만 보이네.

이 귀한 안경 어디서 구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가져 주는 선물이라네.
이런 선물 세상에선 구할 수 없다네.



눅 6:41 말씀을 나의
깨달음으로 적어보다.

사설

“무죄추정의 원칙,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최근 우리 사회의 사법·정치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조항으로, 세계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기본적인 권의 핵심이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는 원리,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토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이 원칙이 어떤 이에게는 방해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잣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무죄추정의 해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고,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반납해야 했을 것이다. 즉, 헌법의 한 조항이 한 사람의 정치적 생애뿐 아니라 국가의 향후 진로까지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남긴 판단-"혐의는 소명되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역시 무죄추정의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 적용은 공정한가?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이러한 헌법 정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야당 인사들,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 공무원·군인들까지도 '내란 연루자', '잠재적 협조자'라는 낙인이 선제적으로 찍히고 있다.

정부 산하 '헌법 존중 TF'가 공무원과 군인 75만 명의 휴대전화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일은, 적지 않은 이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심지어 아직 판결은커녕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죄 확정'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단정이 내려지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이러한 흐름은 법관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대법원장, 영장판사 등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유죄'라

는 정치적 규정이 앞서고 있으니,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형평을 잃은 사법 분위기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일반 사건의 두 배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이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의 법적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전체의 공동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만일 이 원칙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 헌법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정파도 독점할 수 없다. 어느 정부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 원칙을 지켜 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성경은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외친다. 주님께서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정죄하지 아니하라"(요 8:11)고 말씀하시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단으로 사람을 낙인찍는 일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셨다.

다시 성탄절을 맞는다. 성탄절은 바로 그 메시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아니라 '평화의 왕'(사 9:6)으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력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세상에 오셨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운 신아기 예수는 세상의 폭력적 판단과 서열화, 선제적 낙인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이해하시고 품으신 사건이며, 정죄보다 회복을, 배제보다 화해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탄을 맞아 이 헌법 정신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중의 기준 위에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법 앞에서의 형평이 무너지고,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에 낙인이 난무할수록, 교회는 더욱 분명히 말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6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 시 2026년 1월 8일(목)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93 ☎031)443-3731~2

참 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전임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2월 19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엄하석
총무 목사 오세준